**자바 웹 개발 워크북(5~)**

**스프링 부트**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 도구를 함께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서브 프로젝트에서 시작해 메인 프로젝트로 거듭난 개발 도구이다.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는 거의 동의어로 처리되기도 한다. 스프링 부트의 중요한 특징은 Auto Configuration이다. 관련 모듈만 추가하면 자동으로 관련 설정을 찾아 실행하는 간편화 기능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부수적이고 잡다한 모듈 설정이 필요하지 않고 설정 자체도 비교적 단순하다. 또한 내장 톰캣과 단독 실행이 가능한 도구이다. 별도의 서버 설정 없이도 개발/실행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실행 가능한 jar파일로 만들고 다른 운영체제에서 실행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하다.

**기존 개발에서 달라지는 점들**

톰캣이 내장된 채로 프로젝트가 생성되기 때문에 WAS의 추가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또 빈 설정을 XML 대신 자바로 설정해 더 간단해진다. 스프링 MVC에서처럼 JSP도 사용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템플린 엔진인 Thymeleaf를 사용한다. 화면을 구성하지 않고 데이터만을 제공하는 API 서버라는 형태를 사용하기도 한다. 스프링 웹 MVC의 기능과 설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간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생성 방식**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 자동 생성 하거나 Gradle같은 빌드 툴을 이용해 직접 생성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는 1번이 선호된다. 이니셜라이저가 프로젝트의 기본 템플릿 구조를 만들어주고 호환성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